

- 본문 : 빌립보서 4장 4~9절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제목 :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라!”

· 본문 읽기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 끝으로 형제들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 마음의 문을 열며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등 수많은 문학 작품을 남긴 마크 트웨인(Mark Twain)은 미국 문학의 거장으로 불리며, 풍자와 유머, 사회 비판이 녹아든 작품들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마크 트웨인에게 한 단어 쓰는 데 5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문학의 거장인 마크 트웨인에게 “당신이 볼 때 가장 의미 있는 한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더니 그는 “감사”라고 답했습니다.

오늘날 걱정, 근심, 불안, 염려로 가득 찬 어그러진 세상을 ‘평강을 상실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런 세상에서 마음과 생각의 평안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노래하는 당신의 모습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염려를 극복하는 감사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빌립보서 4장은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을 지키고,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까? (7, 9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참고, 요14:27, 사26:3)
2. 빌립보교회 안에서 일어난 다툼에 대해 바울이 행한 권면은 무엇입니까? (2, 3절) 바울은 왜 그런 권면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참고, 요일2:10)
3. 공동체의 평안과 개인의 평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교회에게 말씀에서 비롯된 좋은 것을 내 안에 채울 때 평안을 경험한다는 “생각”에 관한 것(8절)과 함께 개인의 평안을 위한 구체적인 “행함”을 관계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평강의 임재를 깨닫게 하는 3가지 행함은 무엇입니까? (4~6절)
4. 당신의 삶에 연결된 많은 관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기쁨과 관용과 감사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 삶의 열매를 거두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 삶의 파도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자칫하면 평강을 상실합니다. 우리는 평강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머물러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의 평안이 개인의 평안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평안과 가정의 평화에 힘써야 하고 교회의 평화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신은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결단할 때 당신의 “평강 프로젝트”를 어떻게 계획하시겠습니까? 관계유지를 통해 오는 평안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적용을 영가족들과 나누어 봅시다.

· 말씀기도제목

1. 어그러지고 불안정한 세상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확신하여 “평강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2. 공동체 평안과 개인의 평안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 교회의 평안과 가정의 평화에 힘쓰므로 내 속의 거리낌이 없고 상대에 걸림돌이 없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라!’는 말씀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남에게 관용하며,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